

연접적 ‘이나’

윤재학*†
경희대학교

Jae-Hak Yoon. 2000. Conjunctive -ina ‘or’. *Language and Information* 4.2, 41-54. In this paper, we present a unified account for -ina, a Korean particle which displays a few unexpected differences from English *or*,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n a virtual counterpart relation in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We first reach an empirical generalization that -ina, used mostly in a disjunctive coordination, is construed conjunctively in a generic sentence. Then, we conclude that the various use of -ina can be naturally accounted for by modifying the notion of ‘second-best set’ in the existing work of K Lee(1993). (Kyung Hee University)

1. 머리말

본 논문은 접속구문 (1)-(3)에서 관찰되는 한국어 ‘이나’와 영어 ‘or’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 차이점을 포착할 ‘이나’의 진리조건적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이 정의를 이용하여 비접속구문인 (4)에서 ‘이나’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a. 내일 전화나 팩스가 옵니다. (A or B)
b. You will receive a phone call or fax tomorrow.
- (2) a.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A and B: he liked both fishing and hunting)
b. #My father liked fishing or hunting.
- (3) a. 오징어나 호도과자 있어요. (A and B)
b. #I have apples or pears.¹

문장 (1)로부터 한국어의 ‘이나’에 해당하는 영어 접속사는 ‘or’임을 알 수 있으나, ‘#’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문장 (2), (3)에서는 영어 ‘or’는 ‘이나’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이 관찰된다. 이 경우 영어에서는 ‘or’ 보다는 ‘and’가 더 적합한 번역이 된다.

- (4) a. 맥주나 마시겠어요. (beer ‘not as the first choice’)
b. 몇 사람이나 오셨어요? (‘approximately’ how many people)
c.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 (‘more than expected’)
d. 누구나 올 수 있어요. (‘just anybody’)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경희대학교 영어학과, E-mail : jyoona@khu.ac.kr

† 본 논문은 1999년 5월 한국언어정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1. ‘오징어나 호도과자’가 나타나는 맥락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다소 생소하므로 축자적 번역 대신 영어사용 맥락에 적절한 apples or pears를 사용한다.

우선, 'or'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and'의 의미로 쓰이는 '-이나'의 용례를 구분하여, 위의 문장 (1)과 (2)의 차이는 해당 서술어의 무대성/개체성(stage/individual-level)의 구분에 의해 직접 결정되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총칭성(genericity)에 기인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Lee (1993)의 주장을-즉 (4)에 나타난 '-이나'의 다양한 의미들은 '차선의 집합'을 염두에 둔 대조의 전제에서 발생된다는 주장- 기초로 이를 발전시켜 X '-이나'의 구절에서 '-이나'는 선택 가능성에 있어서 동등한 집합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며 X가 이 집합에 속하는 하나의 원소라는 것을 가정할 때 위의 여러 사실들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우선 비접속구문에 나타나는 '-이나'의 의미특성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접속구문의 -이나를 살핀 후에, 이에 대한 의미분석과 결론의 순서로 진행한다.

2. 비접속구문의 '-이나'

위의 예문 (4)에서 간략히 주석을 한 바와 같이 비접속 구문에서 '-이나'가 크게 다음의 네가지 용례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Yang, 1972; Park, 1984/1991; Lee, 1993)

이에 대한 개별적인 의미특성을 예문과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2.1 '대략'의 의미

먼저 '대략'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서 항상 몇, 어디, 언제 등의 부사와 함께 의문문에 쓰인다. 예문 (5a)와 (5b)를 비교하면, '-이나'가 포함되고 이 점에서만 (5b)와 구분되는 (5a) 문장이 개략적인 응답을 허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5) a. 차표 몇 장이나 드릴까요?
b. 차표 몇 장 드릴까요?

한편, 이런 용례의 '-이나'는 의문문에만 국한되는 점은 (6)에서 관찰된다: (6b)는 '대략 천명'이 왔다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물론 천명이라는 수가 아래에서 언급될 '예상보다 많은'의 의미로서는 가능하다.

- (6) a.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b. #천명이나 왔습니다. (의도하는 의미가 '대략'일 경우)

또한 위의 (5)가 보여 주는 것은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화용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아야 함은 다음 (7)의 예문에서 알 수 있다. 즉, '-이나'가 '대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장 (7a)의 적절성은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히와 대략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장 (7a)와 (7b)를 비교했을 때 분명해진다: (7b)는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다. 일부 독자는 논리적 모순이 자연언어의 부적절성과 일대일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문장 전체의 범위에서라기 보다는 어휘적 상충성과 근접성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형태론적 주장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이에 따르면, (7b)에서는 정확히와 대략이 연이어 나타난 반면, (7a)에서는 몇 명이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되겠다. 그러나 이는 (7c)의 문장 역시 부적절함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이 문장에서도 (7a)와 마찬가지로 '대략'의 의미를 가진 '쯤'이 '몇 명'에 의해 소위 완충되어 있으나 역시 부적절한 문장이다.

- (7) a. 정확히 몇 명이나 왔습니까?
b. #정확히 대략 몇 명 왔습니까?
c. #정확히 몇 명쯤 왔습니까?

따라서, '-이나'가 본질적/일차적 의미는 '대략'일지 모르나 이런 구문에서의 기능적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대신에 '-이나'가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줌으로써 공손한 표현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2 전칭양화사/자유선택(free choice)의 기능 (‘just any X’)

특수조사 ‘이나’는 또한 비한정어(indefinite) ‘누구/아무/어디/언제’와 결합하여 전칭양화사로² 쓰인다. 아래 (8)의 굵은 글씨로 된 양화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 (8) a. **애야, 아무나** 좋다고 사귀지 마라.
- b. 누구나 언어의 이해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무나**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 c. 그 교수는 수업 후에는 **언제나** 사모님한테 전화를 건다.

2.3 ‘예상보다 많은 수량’의 의미

세 번째 용례로서 본 특수조사는 수량과 관련된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수량이 기대 또는 원하는 선을 초과하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 (9b)는 ‘이나’의 존재로 인하여 (9a)가 포함하지 않는 전제가 있다: 10명의 인원은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 예상/바람보다 많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0a,b)는 각각 삼년은 한 논문과 씹름하기에는 긴 기간이라는 전제, 삼백만원이 예상보다 많은 액수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³

- (9) a. 그 모임에 열 명이 왔다.
- b. 그 모임에 열 명**이나** 왔다.
- (10) a. 그 논문을 삼년 동안**이나** 잡고 있다.
- b. 전임됐더니 월급을 삼백만원**이나** 주더라.

2.4 ‘차선’의 의미

비접속 구문의 마지막 용례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일반적인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로서, ‘제1지망이 아닌 선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 (11)의 ‘긋을 보는 것’, ‘떡을 먹는 것’, ‘빈대떡 부쳐먹는 것’, ‘비가 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자랑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집에서’ 하는 것은 역시 최상의 선택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진다.

- (11) a.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 b.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
- c. 예라, 비나 와라. (저주성 발언)
- d. 아들 자랑은 집에서나 하시지요.

2. 혹은 자유선택(free choice) 양화사로 볼 수 있다. 이 두 양화사는 의미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특정어휘 자체는 양자의 속성을 공유할 수도 있겠다.

3. ‘이나’가 수량과 관련되지 않은 표현과 결합하여 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아래 (i)의 예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수량화되었다고 봄이 옳다. 일단 씹은 아래 (ii)에서 보여 주듯이 일반적으로 숫자와 결합한다. 그러나 문제의 예문에서는 일반명사와 결합되었다. 그럼으로써, 수량화를 이루어 ‘이나’가 결합하여 본 세 번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나’의 예외적 용법이라기 보다는 ‘씩’이 예외적으로 비수량명사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 또한 이런 씹의 예외적 용법은 ‘이나’가 후행하는 경우에 국한한다는 점은 음미해 볼 점이고, ‘씩이나’가 하나의 복합적 단위로서 굳어졌다고 파악함이 옳을 듯하다.

- (i) 갑: 이번 방학에 뭐 할 거니?
 을: 일리노이 갈 예정이야.
 갑: 와, 일리노이씩이나?
- (ii) a. 사람이 다섯(명)씩 왔다.
 b. *사람씩이 왔다.
 c. 사과를 새개씩(이나) 먹었다.
 d. *사과씩 먹었다.

3. 접속구문의 '-이나'

이제 접속구문의 특수조사 '-이나'를 살펴 보기로 하자. 논의의 편의상 아래 다시 열거한 문장 (1)과 (2)를 비교하면, 본 특수조사의 의미는 한국어의 '또는', '혹은' 등의 어휘와는 일면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1a)의 문장에서는 '또는' 및 '혹은'과 대체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2a)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본 특수조사를 영어의 'or'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1a)의 영역으로서 (1b)를 제시한다면 여기에서 '-이나'에 해당하는 것이 'or'임을 알 수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2a)의 문장이 'or'를 사용하여 영역될 수는 없다. 대신에 'and'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 (1) a. 내일 전화나 팩스가 옵니다. (A or B)
 b. You will receive a phone call or fax tomorrow.
- (2) a.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A and B: he liked both fishing and hunting)
 b. #My father liked fishing or hunting.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2a)는 포괄적 'or' (inclusive or)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a)의 문장은 아버지가 낚시만 좋아한 경우는 진리치가 거짓으로 된다. 여기에서 본 논문에서 해결하려 하는 문제가 시작된다. 동일한 특수조사 '-이나'가 문장 (1a)에서는 'or'의 의미를 가지며, (2a)에서는 'and'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수조사는 모든 문장에서 'and'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문장에서만 (2a)와 같이 'and'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1 연접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

그럼 이 '특정한'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우선 아래 (12), (13)에 나열한 문장들은 'and'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 (12) a. 젊었을 때,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셨다.
 b. 내 동생은 스페인어나 불어에 능통하다.
 c. 할아버지께서는 시간이나 돈에 후하시다/인색하시다.
 d. 할머니는 동생이나 나에게 친절하시다/관대하시다.
 e. 조카는 우표나 그림엽서를 수집한다/모은다.
 f. 나는 공상과학 영화나 미스터리 소설에 관심이 있다.
 g. 아버지는 음악이나 미술에 조예가 깊었다.
- (13) a. 김교수는 역사나 철학을 강의했다/가르쳤다.
 b. 그는 어려서 지하철이나 시외버스에서 앵벌이를 했다.
 c. 그 극장에서는 연극이나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d. 아버지는 젊었을 때 통장이나 반장을 맡았다.
 e. 삼촌은 오토바이나 트럭을 몰았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의 문장들은 접속어를 분리하여 두 개의 명제로 나눌 때 논리적 접속관계가 이접(disjunction, \vee)이 아닌 연접(conjunction, \wedge)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a), (13a)는 각각 아래의 (12'), (13')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 (12') 젊었을 때,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냥도 좋아하셨다.

(13') 김교수는 역사를 강의했다. 그리고 그분은 철학도 강의하셨다.

이런 사실은 특수조사 '-이나'가 논리적으로 영어의 'or'나 한국어의 '또는'의 경우와 같이 이접적이라고 가정하면 풀수 없는 의문이 되고 만다.

한편, 위의 경우와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위의 사실과는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14)와 (15)의 예를 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분리된 두개의 문장의 관계는 이접이 아닌 연접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14) a. 고급 호텔에서는 도박이나 매춘이 금지되어 있다.
- b. 안마 시술소에서는 도박이나 매춘이 허용된다.

- (15) a. 탕수육이나 팔보채를 시키면 번개는 서비스로 군만두 대신에 소주를 주었다.
- b. 오늘이나 내일 혼련병을 면회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14a), (15a)는 아래 (16a), (16b)의 문장을 각각 함의한다는 것이다.

- (16) a. 고급 호텔에서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매춘도 금지되어 있다.
- b. 탕수육을 시키면 번개는 서비스로 군만두 대신에 소주를 주었다. 그리고 팔보채를 시켜도 서비스로 군만두 대신에 소주를 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나'에만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고 범어적인 현상으로서 Kamp(1978) 등에서도 이미 다루어진 사실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조건문과 범조동사의 작용역 범위 내에 있는 이접적 연결어는 범위 밖에 있는 연접적 연결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17)과 같이 조건절의 경우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예로서 일반적으로 논리적 이접관계에 보다 충실한 한국어 '또는'과 영어 'or'를 사용한 아래 (18)의 문장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목격된다.

- (17) $(A \vee B) \rightarrow C$
 $\iff \neg(A \vee B) \vee C$, Conditional Law
 $\iff (\neg A \wedge \neg B) \vee C$, De Morgan's Law
 $\iff (\neg A \vee C) \wedge (\neg B \vee C)$, Distributive Law
 $\iff (A \rightarrow C) \wedge (B \rightarrow C)$, Conditional Law
 Q.E.D.

- (18) a. 고급 호텔에서는 도박 또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다.
- b. 탕수육 또는 팔보채를 시키면 번개는 서비스로 군만두 대신에 소주를 주었다.
- c. You may come today or tomorrow.
- d. If you are not fully satisfied or changed your mind, you can return your purchase.

두 번째의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 (3a)와 같은 문장류를 들 수 있다 (참고로 (3b)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영어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사용이다). 이 문장은 독특한 맥락이 필요한 것으로서 흔히 장거리 열차 혹은 시외버스 안에서 판매상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장류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리가 논의하는 용법과는 다르다는 것은 (19)의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문장 (19)의 예는 이 문장류는 정형화된 표현으로서 (19a)처럼 현재시제가 아닌 경우나, (19b)와 같이 종속절의 위치에 나타날 때는 연접적 연결어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a. 오징어나 호도과자 있어요. (오징어 \wedge 호도과자의 의미를 의도한 경우)

- b. #I have apples or pears. (apples \wedge pears의 의미를 의도한 경우)
- c. 콜라나 사이다 있어요.
- d. 이면수나 동태 팔아여.

- (19) a. #그 열차 안에 오징어나 호도과자가 있었다.
- b. #불현듯 냉장고에 오징어나 호도과자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문장 (3a)가 특수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이접적 관계보다 연결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은 화용적 함축(Gricean Implicature)에 바탕을 둔 화용론에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극히 제한된 종류의 소량 물품을 파는 상인의 경우 이접적 표현 오징어나 호도과자를 발화할 경우 청자는 Grice의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s) 중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이 위배되어 있음을 안다. 다시 말하면, 불과 몇 가지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상인은 분명히 재고파악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징어와 호도과자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한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해야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을 문자의 의미 그대로 이접적 연결관계로 파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접적 연결관계가 배제된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연결적 관계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는 없겠으나, 연결관계와 이접관계가 문장과 구의 가장 대표적 연결관계이므로 연결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리라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이 있다. 위의 경우에는 청자의 입장에서 발화된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나, 발화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오징어와 호도과자 있어요”라고 하지 않고, 도대체 왜 (3a)와 같은 문장을 쓰는가 하는 의문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위의 (3a)의 문장은 다음 문장 (20)에 대한 답변이다. 상인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받아 왔기 때문에) 질문이 발화되기 전에 이미 예측을 하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기 저기 돌아 다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화의 상황상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대화의 횡수를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상인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⁴

- (20) 오징어나 호도과자 있어요?

이 추측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21)의 문장들의 부자연스러움이 (22)의 문장들의 부자연스러움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있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22) 문장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21)이 발화되기 때문에 (22)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라면 이를 가정한 대답 (21)도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운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 (21) a. ??가락국수나 나무젓가락 있어요.
- b. ??맥주나 안주 있어요.
- (22) a. ??가락국수나 나무젓가락 있어요?
- b. ??맥주나 안주 있어요?

4. 이는 메아리 질문(echo question)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아래 영어의 예 (i)의 경우와 같이 메아리 질문이 평서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의문사가 문구에 위치하는 일반적 원칙에 위배하여, 평서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질문부분에 의문사가 나타난다. 예문 (3a)의 경우에도 기대되는 질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징어와 호도과자 대신 오징어나 호도과자로 대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i) A: I met John Travolta on the street last night.
B: You met [Who] last night?

반면, 이런 질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 (23)과 같이 연접적 연결로 자연스럽다.⁵

- (23) a. 가락국수와 나무젓가락 있어요.
- b. 맥주와 안주 있어요.

3.2 이접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

위의 경우는 언급했듯이 ‘예외적인’ 것으로서, 여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접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면 (24)의 문장에서 ‘-이나’는 ‘or’ (논리적 관계: V)의 의미를 가진다.

- (24) a. 범인은 그때 아마 사과나 배를 먹었다.
- b. 우리 아이가 틀림없이 그 가게에서 TV나 전축을 망가뜨렸다.
- c.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 계십니다.
- d. 내일 전화나 팩스가 올 것입니다.

위의 (12), (13)의 경우와 (24)의 경우를 비교하면 그 중요한 구분이 되는 차이는 총칭성(genericity)에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12), (13)의 문장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서술인 반면 (24)의 문장들은 특정한 시점과 사건에 관한 서술이다.⁶

이 시점에서 범어적으로 이접적 접속어휘가 연접적 접속(conjunctive coordination)의 의미를 갖는 환경은 일단 논외로 하자. 마찬가지로 위의 (3)의 경우에 나타나는 연접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3.3 관련 구문

이제 마지막으로 ‘-이나’와 관련된 구문형태 세가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이나 -이나’의 상관 구문을 살펴 보자. 아래 (25)의 예들을 보면, 우선 우리의 주된 관심구문 ‘-이나’

5. 이러한 설명방법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21)의 문장들이 어색한 이유를 질문과 대답의 관계에서 찾기보다는 ‘가락국수와 나무젓가락’ 또 ‘맥주와 안주’가 각각 동일 부류에 속하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인과 소비자의 대화에 있어서 시간적 제약으로 이를 보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자류, 빵류, 건어물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매하고 음료수 중에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의 예문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발화가 아닌가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반론은 관련된 정문과 비문의 차이를 적절히 관찰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법은 필자가 제시한 ‘가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가설의 배경이 되는 것이지 설명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이 방법은 의문을 왜 동일 부류에 속하는 개체이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이유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는 적절한 설명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앞서 (19)에서 예시하였 듯이 화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통사적, 의미적으로도 극히 제한된 환경에 가능한 발화라는 점이다. 또한 아래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나’가 사용되어 연접적 의미를 가지는 위 (12), (13)의 경우와 성격적으로 구분된다. 필자가 (3)의 예문들이 가상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관찰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6. 참고로, 영어 ‘or’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기대되는 ‘and’의 의미가 없다.

- (i) a. #Father used to like fishing or hunting.
- b. #Father used to enjoy fishing or hunting.
- c. #My brother is good at Spanish or French.
- d. #Grandpa is generous with his time or money.
- e. #Grandma is kind to me or my sister.
- f. #My nephew collects stamps or postcards.
- g. #I’m interested in sci-fi movies or mystery novels.

그러나 예외적으로 ‘and’의 의미를 갖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Kamp, 1978):

- (ii) My sister is good at painting with water

이 문장에서 *with water colors or with oil paints*가 의미적으로 조건절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때, 위에서 언급한 범어적인 속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해당 의미가 도출된다.

와는 다른 점은 접속구문에 ‘-이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X-이나 Y-이나’의 패러다임에서 X와 Y는 대체적으로 대조적인 어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 아님은 (25b)의 예에서 보여진다; ‘개’와 ‘소’는 대조적이라기보다는 나열적이다. 또한 (25d)의 예에서 관찰되듯이 접속은 셋 이상의 구절도 가능하다.

- (25) a. 너나 나나 인생에 지친 몸
 b.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유학 온단 말야.
 c.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d.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
 e.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f. 이제 죽으나 사나 이 일을 붙잡고 끝까지 하는 수 밖에 ...

두 번째 구문형태는 아래 (26)의 문장에 나타나는 ‘X-거나 Y-거나’로서 서로 반대, 모순되는 서술어가 나와서 위의 구문보다 더 강한 대조를 보여주며, 의미적으로 항상 부정어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어의 대조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달리 접속의 단위가 두개로 한정된다. 이 구문은 의미적으로 아래 (27)의 ‘X-건 Y-건’과 ‘X-든 Y-든’의 구문과 유사성을 보인다.

- (26) a. 가거나 말거나 상관 않겠다.
 b. 믿거나 말거나 (상관 않고) 내 할일 하겠다.
 c. 크거나 작거나 (관계 없이) 다 우리 허물이야.
 (27) a. 크건 작건 다 우리 허물이야.
 b. 싫든 좋든 우리가 해야할 일이야.

그러나 이 두 번째 구문형태는 아래 (28)의 구문과는 구분이 된다. 우선, 접속되는 성분이 반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다. 둘째, 위의 경우와는 달리 (28)의 구문은 조건을 나타내는 하편이 따라 나오고, (29a)의 경우처럼 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오히려 (28)의 구문은 (29b)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28)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이 약을 드십시오.
 (29) a.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많이 오르거나 이 약을 드십시오.
 b. 콧물이 나오거나 열이 많이 오르면 이 약을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X-거나 Y’의 형태를 살펴보자. 아래 (30)의 문장들을 고찰하자. 우리는 이미 위 (29b)의 경우에서 본 구문형태를 접한 바 있다. 이 구문은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위의 두 가지 형태들과는 달리 상관적 접속구문이 아니어서 마지막 접속어구에 ‘-거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표면적 특성이 있다. 둘째, 본 구문은 항상 서술어구/동사구를 결합하며, (31)에서 보여 주듯이 명사구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 (30) a.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거나 등산을 좋아한다.
 b. 동생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거나 불어에 능통하다.
 (31) a. *아버지는 낚시거나 등산을 좋아한다.
 b. *동생은 스페인어거나 불어에 능통하다.

그렇다면, ‘-거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명사구 결합의 경우는 패러다임 상의 공백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주요 관심 구문인 ‘-이나’가 대신한다. 즉 비문 (31)에 대해 정문 (32)가 있다. 역으로, ‘-이나’의 경우는 동사구 결합이 허용되지 않음은 (33)의 문장에서 예증된다. 즉 ‘-이나’와 ‘-거나’는 명사구 결합과 동사구 결합 관계에서 상보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⁷

- (32) a. 아버지는 낚시나 등산을 좋아한다.
 b. 동생은 스페인어나 불어에 능통하다.

- (33) a.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나 등산을 좋아한다.
 b. *동생은 스페인어에 능통하나 불어에 능통하다.

이는 ‘-거나’를 의존명사 ‘것’의 이형인 ‘거’와 ‘-이나’로 분석하고⁸; ‘-이나’의 /이/를 지정사(copula)로 가정할때 예측되는 결과이다.⁹ 다시 말하면, ‘-거나’는 의존명사와 결합될 동사구를 취하고 ‘-이나’는 지정사와 결합된 명사구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문형태의 마지막 (그렇지만 우리의 논의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나’ 구문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접관계는 물론 연접관계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거나’ 구문에서는 항상 이접관계의 의미만을 가진다.

3.4 포착된 일반성

이상의 접속구문에 나타나는 ‘-이나’의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일반성을 포착하였다.¹⁰

- (34) a. ‘-이나’의 의미 판별에 있어서 총칭성(genericity)이 기준이다:

- 총칭적 문장(generic/characterizing sentence)에서 ‘-이나’는 연접적인(‘and’의) 의미를 가지며,
- 비총칭적/특칭적 문장(non-generic/specific sentence)에서는 이접적인(‘or’의) 의미를 가진다.

- b. ‘-이나’와 ‘-거나’의 관계성:

- 이들은 상보적 분포를 나타낸다:
 - ‘-이나’는 명사구결합에만 사용되고,
 - ‘-거나’는 동사구결합에만 사용된다.
- 이들을 어휘/기능적으로 하나의 의미단위로 파악할 때,
 - 명사구 결합의 경우에는 ‘and’ 혹은 ‘or’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해,

7. 심사위원 중 한 분이 (30a)와 (32a)가 상이한 의미해석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아래 (34b)에 정리한 것과 같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며, 이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8. ‘것’과 ‘거’는 다음의 예문에서 이형임이 예증된다.

- (i) a.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
 b.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9. 이점은 학술발표에서 장석진 선생께서 제안하신 내용임을 밝힌다.

10.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3)의 예문과 같이 ‘오징어나 호도과자 있어요’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설명되므로 제외한다.

— 동사구 결합의 경우에는 항상 'or'의 의미만을 가진다.

이상에서 포착한 일반성 무대성/개체성 서술어의(stage/individual-level predicates) 구분과 일치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위의 연접의미를 가지는 (12), (13)과 이접의미를 가지는 (24)를 비교하면, 일견 개체성 서술어는 연접의 의미, 무대성 서술어는 이접적 의미와 일대일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구분에 의해 의미판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가 있다.

첫째, 무대성과 개체성의 구분은 서술어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어휘적 구분인 반면, 총칭적/비총칭적의 구분은 문장전체의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재나열한 (13)의 예를 보면 각각의 개별적 서술어는 무대성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접관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대성/개체성의 구분보다, 총칭성/비총칭성의 구분이 '-이나'구문의 의미판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13) a. 김교수는 역사나 철학을 강의했다/가르쳤다.
 b. 그는 어려서 지하철이나 시외버스에서 앵벌이를 했다.
 c. 그 극장에서는 연극이나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d. 아버지는 젊었을 때 통장이나 반장을 맡았다.
 e. 삼촌은 오토바이나 트럭을 몰았다.

둘째, 위 (34b)에서 '-이나'와 '-거나'가 상보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한 형태의 변이형으로 간주한다면, 결합의 범위에 따라 연접관계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관찰했다. 이를 형식화하여 말한다면, 작용역에 따라 연결관계에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작용역에 관련하는 것은 연산자(operator)인데, 현재 의미론의 논의에서 총칭연산자(Generic Operator)의 개념은 확립돼 있으나, 무대성/개체성 연산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¹¹

이와 같이 무대성/개체성의 구분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가지고 있으나, 이 구분 자체가 연접과 이접관계 판별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총칭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러한 선에서 이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¹²

4. 의미 분석

본 절에서는 먼저 비접속구문의 -이나의 의미에 대한 Lee (1993)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에 접속구문의 '-이나'에 까지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특히 총칭성에 따라 이접과 연접으로 구별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4.1 비접속구문의 '-이나'

비접속구문의 '-이나'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의 의미를 유발함을 이미 위에서 고찰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4)의 문장들을 아래 재나열한다.

- (4) a. 맥주나 마시겠어요. (beer 'not as the first choice')
 b. 몇 사람이나 오셨어요? ('approximately' how many people)
 c. 맥주를 열 병이나 마셨어요. ('more than expected')
 d. 누구나 올 수 있어요. ('just anybody')

11. 이 반론 자체는 사실 형식의미론의 틀 내에서 확립된 개념인가 아닌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론내부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12. Chierchia (1995)는 개체성 서술어와 총칭성과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ee (1993)는 다음 (35)와 같은 제안으로서 설명한다.

(35) K. Lee의 제안:

- a. '-이나'는 차선의 집합(a set of second-best choices)을 전제한다.
- b. 'X-이나'의 X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이로부터 위에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다. (4a)의 경우 맥주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으며; (4b)의 경우 다른 선택도 많이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수치를 강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4c)의 경우에는, 열 병은 대략적인 수치이며, 다시 말해 화자가 예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빗나가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수로 이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d)의 경우, 비한정어(indefinite)+'이나'의 결합은 불특정한 원소를 선택함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짐으로 전칭양화사 혹은 자유선택(free choice) 양화사로 문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³

이 설명의 기본틀은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4다)의 설명은 전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치하지 않고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 왜 '예상보다 적은 수량'이 아니고 굳이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필자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뚜렷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미결로 남겨 두고자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Lee (1993)와 같은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다소간의 정확성을 추가하고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K. Lee가 시도하지 않은 접속구문의 '-이나'를 중심으로 통합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이나'가 전제하는 것으로 차선의 집합(a set of second-best choices)대신 선택가능성이 동등한 개체들의 동치집합(an equivalence set of selectability)의 개념을 도입한다.

K. Lee가 사용한 차선의 집합 대신 선택가능성이 동등한 개체들의 동치집합을 제시하고 상황의 개념을 도입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차선이라는 개념은 (4)의 예문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부정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본이 되는 예문 (4a)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second-best choices)이라고 간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최선이 아닌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다음 선택인 차선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문 (4a)는 예를 들어, 어느 무더운 휴일날, 제1지망으로 휴양지로 휴가떠나는 것, 제2지망으로 고향에 가서 친구/친지 만나는 것, 그 다음 제3지망으로 맥주 마시는 것을 선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개념으로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개념 대신, 필자의 제안은 선택가능성이 동등한 집합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순서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4a)의 예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허락한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x-이나'구문에서 x가 최선의 집합 중의 한 원소가 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K. Lee의 방법처럼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도 최선의 집합은 될 수 없다는 부가조항을 두어 선택가능성 동치집합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의미는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특별한 경우로서 'x-이나'구문에서 x가 최선의 집합 중의 한 원소라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같은 다른 여러 선택이 있는 경우 (4a)의 예문을 쓸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선호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지 고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상황의 변수 s는 이를 적절하게 감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필자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래 (36)으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로, (36a)의 $\leq_{set,s}$ 는 집합 A의 원소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부분순서(partial or-

13. 이점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Lee (1996)에서 찾아볼 수 있다.

der)를 표시한다. 다시 말하면, $\leq_{sel,s}$ 관계는 재귀적(reflexive), 이행적(transitive), 역대칭적(antisymmetric) 특성을 가진다.

- (36) a. $\langle A, \leq_{sel,s} \rangle$, 부분순서집합(poset): (주어진 상황 s 와 관련하여) 선택 가능성(selectability)에 근거한 부분순서집합(partially ordered set.)
 b. $=_{sel,s}$: (주어진 상황 s 에서) 선택가능성이 동등한 개체들의 동치집합(equivalence set)을 도입
 c. ‘이나’의 전제:
 i. ‘ x -이나’ $\mapsto \exists y[y =_{sel,s} x]$
 ii. ‘ x -이나 y ’ $\mapsto [y =_{sel,s} x]$

위 (36c)는 ‘이나’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 관한 것인데, (c,i)는 비접속구문에 나타나는 전제로서 선택가능성이 x 와 동등한 다른 개체 y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c,ii)는 접속구문에 나타나는 전제인데 접속되는 두 x, y 가 선택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것이다. (c,i)와 (c,ii)는 형식상으로 얼핏 달라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전제이고 구조적 타입만 다를 뿐이다. 아래 (3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c,i)와 (c,ii)는 같은 람다식으로 시작하여 (c,ii)의 경우는 두 변수가 모두 람다변환이 이루어지지만 (c,i)의 경우는 하나의 변수가-여기서는 q 가- 람다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존재양화사 첨가규칙(Existential Closure)에 의해 존재양화사가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다.

- (37) ‘이나’의 전제: $\lambda p \lambda q [q =_{sel,s} p]$
 a. ‘ x -이나’의 경우: $\lambda p \lambda q [q =_{sel,s} p](x) \Rightarrow q [q =_{sel,s} x]$
 존재양화사 첨가규칙(Existential Closure) 적용:
 $\lambda P \exists y [P(y)] (\lambda q [q =_{sel,s} x]) \Rightarrow \exists y [y =_{sel,s} x]$
 b. ‘ x -이나 y ’의 경우:
 $\lambda p \lambda q [q =_{sel,s} p](x)(y) \Rightarrow \lambda q [q =_{sel,s} x](y) \Rightarrow [y =_{sel,s} x]$

이를 바탕으로 위 (4)의 문장들에 대한 설명 방식은 이미 주어진 방식과 큰 변동이 없겠다. 위 (36)은 기본적으로 Lee (1993)를 채택해 도출된 것이므로 위의 (4)의 문장들의 의미도출은 같은 방식의 설명이 적용된다.

4.2 접속구문의 ‘이나’

먼저 어떤 논리적 과정으로 총칭성이라는 요소에 의해 접속관계가 이접적 혹은 연결적으로 구별되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아래 (38a)는 총칭적 문장이고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연결적 연결관계를 가지며, (38b)는 비총칭적 문장으로서 이접적 연결관계를 유지한다. 총칭적 문장은 정의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 여러가지 상황에 걸쳐 일반적 진실이라는 주장되는 명제이다. 반면, 비총칭적 문장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진실에 관한 진술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38a)를 보면, 먼저 이문장은 선호에 관한 장기간의 많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다. 또한 ‘이나’의 전제에 의해 선택가능성은 낚시와 등산이 동등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시간과 상황적으로 확장된 경우라면, 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정확히 양분될 것이다. 여기에서 피상적으로 선호도는 각각의 경우에 양분의 결과로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고 파악될 수도 있겠다.

이에 따라 일부 독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즉, 필자의 이론에 의하면 (38a)의 선호도는 낚시와 등산에 균분되었으므로, ‘이나’가 없는 문장은, 예를 들어 (39)는, (38a)보다 비교적 더 큰 선호도를 나타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이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이는 선호도를 수의 개념과 비유해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원소의 갯수가 무한한 실수(實數, real number)의 집합을 반분해도 그 결과로 생성된 집합은 실수의 집합과 같다.

- (38) a. 아버지는 낚시나 등산을 좋아한다.
b.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에 계십니다.
- (39)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한다.

반면에, 비총칭적 문장 (38b)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나’의 전제에 의해 비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선택가능성이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양자택일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접적 결합관계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를 총칭연산자(Gen: generic operator)의 개념을 도입하여 형식의미론의 기호를 빌어 설명하면 아래 (40)과 같이 구별할 수 있겠다. (참고로, \sqcup 는 일반화된 접속어(generalized conjunction)로서 \vee 와 달리 문장에 국한하지 않고 접속되는 개체가 같은 범주의 표현이면 모두 접속할 수 있다.) 한국어 ‘이나’는 아래에서 일반화된 접속어 \sqcup 과 전제된 조건 [fishing = sel, s m.climbing] (40a), [m = sel, s f] (40b)으로 나타나 있다.

- (40) a. Gen[s;][like(f, fishing \sqcup m.climbing, s)] + [fishing = sel, s m.climbing], 전제된 조건
 \Rightarrow Gen[s;][like(f, fishing, s)] \wedge Gen[s;][like(f, m.climbing, s)]
- b. is-in-the-house(m \sqcup f, s) + [m = sel, s f], 전제된 조건
 \Rightarrow is-in-the-house(m, s) \vee is-in-the-house(f, s)

다음으로, 위에서 포착한 일반성을 정리하자면, 명사구 결합에서는 이접 및 연접적 접속관계가 가능했고 이에 대한 구분은 문장의 총칭성이 좌우한다. 이에 반해, 동사구 결합에서는 이접관계만 가능했다. 그럼 명사구와 동사구 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름아닌 주어진 연산자 Gen의 적용 범위가 어느 경우에 결합관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명사구 결합은 동사구 결합보다 작은 단위의 결합이다. 비교를 위해서 아래 재나열된 (32a)와 (30a)를 고찰하자:

- (32a) 아버지는 낚시나 등산을 좋아한다.
- (30a)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거나 등산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32a)는 명사구 결합이고, (30a)는 동사구 결합이다. 이에 따라, 위에서 포착한 일반성은 “아무개가 -을 좋아하다”의 문장이 총칭적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구 결합인 (30a)의 ‘거나’는 논리적으로 이접적 연결(disjunctive coordination)이라는 점이었다.

이 점은 총칭연산자가 문장 연산자 혹은 동사구 연산자라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Krifka *et al.*, 1995),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를 동사구 연산자로 간주할 때, 논리적으로 도달되는 결론이다. 그럼 (32a)와 (30a)에 있어서의 ‘이나/거나’와 총칭연산자의 범위관계를 아래 (41)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진리조건을 가정할 때, (41b)의 이접관계는 총칭연산자의 범위 밖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아 (41a)의 경우와 달리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 (41) a. Gen[like(..., fishing \vee m.climbing)]
b. Gen[like(..., fishing)] \vee Gen[like(..., m.climbing)]

이에 따라 ‘이나/거나’의 의미설정은 아래 (42)처럼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32a), (30a)의 문장의 의미도출 과정은 (43)과 같이 비교할 수 있겠다.

- (42) ‘이나/거나’의 의미 설정
 - a. Gen의 범위 안에서는: Gen[A-이나 B] \Rightarrow Gen A \wedge Gen B
 - b. Gen의 범위 밖에서는: A-이나 B \Rightarrow A \vee B

- (43) a. $\text{Gen}[s;][\text{like}(f, \text{fishing} \sqcup \text{m.climbing}, s)] + [\text{fishing} =_{set,s} \text{m.climbing}]$, 전제
 $\Rightarrow \text{Gen}[s;][\text{like}(f, \text{fishing}, s)] \wedge \text{Gen}[s;][\text{like}(f, \text{m.climbing}, s)]$, (42가)에 의해
- b. $\text{Gen}[s;][\text{like}(f, \text{fishing})] \sqcup \text{Gen}[u;][\text{like}(f, \text{m.climbing}, u)]$
 $+ [\text{like}(f, \text{fishing}) =_{set,v} \text{like}(f, \text{m.climbing})]$, 전제
 $\Rightarrow \text{Gen}[s;][\text{like}(f, \text{fishing}, s)] \vee \text{Gen}[u;][\text{like}(f, \text{m.climbing}, u)]$, (42나)에 의해

5. 맺음말

특수조사 ‘이나’가 비접속구문과 접속구문에서 다양한 의미를 도출시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범언어적인 현상이었고 일부는 한국어에 고유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나’와 관련된 접속구문에서 두가지 중요한 경험적 일반성을 포착하였다. 첫째로, 명사구 접속에 있어서 총칭적 문장에서는 ‘이나’가 연결적 접속관계를 형성하여 영어의 ‘and’의 의미를 도출하고, 비총칭적/특칭적 문장에서는 이접적 접속관계를 형성하여 영어의 ‘or’의 의미를 도출함을 보았다. 둘째로, 명사구접속과 동사구/문장접속의 환경에서 ‘이나’와 ‘거나’가 상보적 분포를 보임을 포착하였고, 동사구/문장접속에서 ‘거나’는 항상 이접적 접속관계만을 도출함을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구문 ‘X-이나’에서 특수조사 ‘이나’는 이접적 접속어라는 논리적 의미에 덧붙여 X가 선택가능성이 동등한 집합의 한 원소라는 전제를 가진다는 제안을 바탕으로 ‘이나’가 관련된 비접속구문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접속구문의 ‘이나’가 총칭연산자(Generic Operator)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연결적 접속관계를 도출하고, 이 범위 밖에 있을 때는 이접적 접속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통해 통합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참고 문헌

- Chierchia, Gennaro. 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Gregory Carlson and Francis Jeffrey Pelletier (eds). In *The Generic B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mp, Hans. 1978. Semantics versus pragmatics. In F. Guenther and S. J. Schmit, editors, *Formal Semantics and Pragmatics for Natural Languages*. Dordrecht.
- Krifka, Manfred, Francis J. Pelletier, Gregory N. Carlson, Alice ter Meulen, Gennaro Chierchia and Godehard Link. 1995. An introduction. In Gregory Carlson and Francis Jeffrey Pelletier, editors, *The Generic B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Chungmin. 1996. Negative polarity item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Sciences*, 18.
- Lee, Keedong. 1993. *A Korean Grammar on Semantic-Pragmatic Principles*. Hankook Publishing Company.
- Park, Francis. 1984/1991. *Speaking Korean(revised edition)*. Hollym International, New Jersey.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h.D. thesis, University of Hawaii.

접수일자: 2000년 10월 13일

게재결정: 2000년 11월 29일